

증권사들, 디지털 역량 강화 '박차'

AI·빅데이터 분석·온라인 전용 콘텐츠 제작 모바일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

전통적으로 증권사의 주요 고객은 고액자산가로 꼽혀왔지만 최근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객들의 범위가 넓어지자 증권사들도 디지털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적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투자 정보를 담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 제작 등 방법도 다양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8월 '로보포트(Robo-Port)'와 '로보픽(Robo-Pick)'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산관리를 도와준다.

삼성증권은 최근 기업비즈니스 플랫폼 전문기업 더존비즈온과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의 '위하고' 플랫폼은 기

업의 금융 투자를 포함해 각종 금융 서비스, 경영관리, 통신, 신용정보 및 임직원 복지와 각종 부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도 많아지는 추세다.

KB증권은 주식·금융상품 등 문의 사항을 미리 모바일로 상담신청해 전문 PB의 전화 및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KB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M·able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PB상담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00여개 지점 중 원하는 지점과 날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당에약일은 다음날부터 2주 이내 까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과 간편 이체, 간편 주식 등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새 모바일레이딩시스템(MTS) '힘' (Hi-M)을 출시했다.

새로운 MTS인 '힘'은 기존 MTS였던 스마트하이플러스를 보완해 주식·펀드의 손쉬운 매매절차는 물론 간소화된 계좌 개설, 간편이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까지 원스톱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일 서비스(랩)를 출시했다.

투자일임은 그 동안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일일계약서 비대면 설명의무가 허용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운용성과를 1년 6개월간 공시하고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일일 계약이 가능하다.

좁어지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투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도 최근 변화된 트렌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3월부터 신한금융투자 프라이빗뱅크(PB)들이 출연하는 '금융주식회'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트렌드와 투자포인트를 알려 준다.

콘텐츠 주제는 1주일 전에 사전 공

개하고, 투자자들의 질문을 미리 접수 받는다. 이후 PB들이 출연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주식투자 포인트를 짚어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31일 SNS 통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증권사들이 실시간 방송을 해온 것은 오래된 콘텐트지만 이번 삼성증권의 시도는 투자자 또는 시청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차별점이 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투자 정보를 개척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에 변주를 가하는 증권사도 있다.

KB증권의 김두연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보고에' (보고서 읽어주는 애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기존 보고서에 음성파일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지점이 감소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등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스스로 미래 설계하는 창의인재로

전북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을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모의창업 등을 가르치며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413여개 학교를 비즈쿨로 지정,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예산은 76억원으로 비즈쿨 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당 4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기업가정신 교재,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체험활동비, 전문가 강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실습(Learning by making) 위주로 전면 개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1백만명(연인원)의 청소년들이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다가온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통해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정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편됐고 산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대학교수, 비즈쿨 교사 등 지난해 도내 비즈쿨 학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율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팀워크로 참여한 '나비창업캠프', 창업축제의 Start-up 전북 2018 행사와 연계한 '비즈쿨마켓', 중소기업 재직자가족 대상, '4차 산업혁명 체험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넓은 대상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했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비즈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자기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비즈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전국의 초, 중, 고교(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2월 26일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유류세 인하 석달... 국제 유가 하락에도 경유 인하는 '찜뚝'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주유소들이 경유에는 국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정유사 중에서는 휘발유는 SK에너지가, 경유는 GS칼텍스가 인하한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5일 기준 상표별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와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의 가격을 비교해 분

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8일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179.6원)과 유류세 인하분(123원)의 합계액(302원) 이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춘 주유소는 전국 1만1270곳 중 1만438곳으로 92.62%로 집계됐다.

경유사별로는 현대오일뱅크의 94.61%가 302원 이상 내려 가장 비율이 높았다. 에스오일 93.64%, GS칼텍스 92.98%, SK에너지 88.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유는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리터당 258원을 인하한 주유소가 전체의 4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5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 비율이 가장 높은 정유사는 현대오일뱅크로 45.11%였다. 이어 에스오일 44.61%, SK에너지 44.12%, GS칼텍스 43.58% 순이었다.

서울만 보면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제대로 내린 주유



소는 71%, 경유는 34%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기름값을 인하한 비율이 가장 적은 정유사는 SK에너지 주유소로 휘발유는 58.8%, 경유는 29.4%만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하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지금은 이스타이밍' 임박 특가 진행

출발 임박 항공편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지난 8일부터 '지금은 이스타이밍' 이벤트를 오픈해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지금은 이스타이밍' 특가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출발 임박 특가로 이벤트가 오픈되는 달의 항공편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고정 특가 이벤트다.

이번 2월 이벤트를 활용하면 2월 9일부터 28일까지 출발 가능한 국제선 총 18개 노선에 대해 특가 예약이 가능하다. 대표 노선의 가격은 편도총액

운임 기준 최저가 ▲일본 이바라키 6만9900원 ▲중국 푸둥(상하이) 7만5900원 ▲태국 방콕 9만3900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9만8900원 ▲베트남 나트랑·푸꾸옥 10만90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존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했던 이스타이밍 특가 이벤트를 한주 앞당겨 진행해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둘째 주 금요일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이달 중 6조원 재정증권 발행... 경쟁입찰로 진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단기 차입수단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이달 재정증권은 13일과 20일, 27일에 각각 2조원씩 발행된다. 입찰 기관은 통안증권 입찰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 국고금 위탁운용기관이 대상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발행 이후 재정증권 발행 누적액은 6조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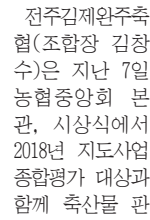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하는 재원은 이달 중 일자리 예산 집행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에 충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우수한 경영성과 달성과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

전주김제원주축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축산물 판매 대상 수상



전주김제원주축협(조합장 김광재)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본관, 시상식에서 2018년 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과 함께 축산물 판매 연도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김제원주축협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 나눔축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계축산인육성 등 19개 분야에서 지도사업 역량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실익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 축협부문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됐다.

결과 축산물 판매부문 우수 조합으로 선정되어 축산물 판매 연도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한 김광재 조합장은 "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과 축산물 판매 연도대상을 동시에 수상하기까지 조합원님들의 조합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축산물 판매 연도대상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산업 발전과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김제원주축협은 지난 한 해 농협 최고 영연인 '총화상'을 수상했고 전국 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상 수상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